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25〉 광주 '광장음악회'

도심 한복판서 '희망' 노래 부르는 즐거운 무대

한 달에 한번 금남공원서 관객들과의 만남

"팬 늘어 큰 힘…클래식 대중화 통로 되길"

한달에 한번 광주 금남공원(옛 한국은행 자리)에서는 성악가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진다. 클래식 연주자들은 누구나 최상의 공연을 위해 완벽한 무대를 꿈꾼다.

하지만 이곳엔 신디사이저 한대만 놓여 있을 뿐 자신들의 목소리를 빛내줄 근사한 피아노도 없고 음향 시설도 변변치 않다. 연주자를 돋보이게 하는 조명과 객석 등이 갖춰진 정식 공연장에 비하면 무대는 또 얼마나 초라한지.

하지만 무대에 서는 성악가들은 관객과 함께하는 이 공연이 멀게만 느껴지는 클래식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진정한 생활 속 문화로 자리잡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이 꾸려가는 '광장음악회'는 이제 광주 시민들에게 조금은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음악 분야의 경우 최근 야외 공연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대부분 대중음악이다. 그런 점에서 정통 클래식 연주자들이 '광장'으로 나와 관객들을 만나는 건 분명 의미 있는 행보다.

지난 2006년 10월 첫 공연을 가진 광장음악회를 추켜든 이는 현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바리톤 정찬경씨와 아내 한유진씨다.

오래 전부터 야외음악당 같은 곳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무대를 꿈꿔왔던 정 씨는 '여건이 어렵더라도 일단 시작해 보자'며 몇몇 성악가와 의기투합했다.

우선 장소 확보가 문제였다. 조용하고 시설이 나은 곳도 있었지만 도심 한복판으로 나가기로 했다. 좀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서다.

'10월, 멋진 어느날'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번째 음악회는 연미복과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 입은 메조소프라노 신은정, 바리톤 정찬경, 테너 임형선, 소프라노 홍선희씨가 출연,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등 아리아와 한국 가곡을 선사했다.

'사람들이 클래식 공연을 좋아할까'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 우려했던 회원들은 첫 무대를 갖고 나서 '가능성'과 '희망'을 봤다.

길을 가던 이들이 멈춰서 노래를 감상하고, 한 관객은 "아름다운 성악가의 목소리가 들려서 어디선가 라디오를 틀어놓은 줄 알았다. 정말 좋은 경험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현재 광장음악회에는 첫음악회 참가자와 테너 김백호, 소프라노 김은선·노연선·이환희·김혜미, 메조소프라노 서승희씨 등이 합류했다. 모두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했고, 오페라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는 베테랑들이다.

광장음악회는 지금까지 19번 공연을 가졌다. 매월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열고 다채로운 시도를 한다.

도심 한복판인 광주 금남공원(옛 한국은행 자리)에서 열리는 광장음악회는 클래식과 대중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광장음악회 제공〉

지난 6월에는 '축배의 노래' 등 '라 트라비타'의 삽입곡들로만 꾸민 오페라 갈라 무대를 선보였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진행된 이날 공연은 출연자들에게도 관객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줬다.

지난해 충장로 축제가 열리는 10월에는 '성악가들이 부르는 가요'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보고 싶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해',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등을 선사 또 다른 감동을 전했다.

음악회가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공연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사실, 음악회를 찾는 이들의 약 80%는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해보는 이들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정식 공연장에서 열리는 클래식 무대는 너무 문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자연스레 음악에 빠질 수 있게 해준다. 학교 다닐 때 불렀던 '가곡'의 추억을 기억해 내는 장년 관객들도 있고, 아이들 손을 잡고와 조용히 음악을 듣고 가는 젊은 주부들도 많다.

초창기 음악회를 꾸릴 당시에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다. 성악가들이 직접 플래카드를 걸고 무대도 준비하는 등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든든한 후원군들이 생겼다. 공연을 관람하다 자연스레 '팬'이 된 이들이 힘을 보태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 찻집 다담을 운영하는 강덕순씨와 강예심(한국전례원 광주지부)씨는 공연 때마다 전통차를 관객들에게 대접하고 음악회 구경왔다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푹 빠진 아마추어 사진작가 송찬모씨는 광장음악회 공연 모습을 앵글에 담고 있다. 또 영상으로 공연 실황을 녹화해주는 회원도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cafe.daum.net/piazza21) 회원들은 음악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음악회 진행을 돕는다. '내가 만든 음악회를 내가 즐긴다'는 생각에 회원들은 뿌듯해한다.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에서 지원금을 받기는 하지만 음악회를 여는 데는 턱 없이 부족한 액수다. 광장음악회 운영회원과 지인들이 힘을 보태고 회원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준다. 기업 후원을 받는 건 결코 녹록치 않은 작업이지만, 좀 더 좋은 음악회를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뛸 계획이다.

"무대에 서는 성악가들에게 항상 죄송하죠. 보통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클래식과 친근해지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공연장에도 쉽게 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딘 걸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광장음악회가 지역 음악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해요."

공연 팸플릿을 디자인하고 홍보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한유진씨는 성악가들에게 좀 더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깝다고 말한다.

"저희가 꿈꾸는 건 사람들이 즐기고 재미있어 하는 음악회예요. 물론 저희들도 행복해야 하구요."

정찬경 대표는 "우리 음악회가 공연문화를 다각화시키고 클래식이 대중과 친숙해지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요와 추억의 노래

10월 공연…'아트팝' 전경옥씨 특별 출연

광장음악회 10월 공연이 18일 오후 8시 금남공원에서 열린다.

해마다 충장로 축제가 열리는 10월에는 가요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특징.

이번 무대 역시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와 추억의 노래들로 프로그램을 짰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아트팝'이라는 독특한 장르로 활동중인 서울대 성악가 출신의 전경옥〈사진〉씨가 특별출연, '아름다운 것들', '귀뚜라미', '손이 차가운 이유 따뜻한 이유' 등을 들려준다.

또 바리톤 정찬경씨는 '직녀에게', '한계령', 대전부르스'를 선사하며 류한호(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특별 출연, '상록수'와 '제비'를 들려준다.

그밖에 기차 여행 조찬우, 호남대 실용음악과에 출강중인 이용호씨가 출연한다.

한편 11월 공연은 15일 오후 5시 '월드 뮤직-세계 각 국의 민속 음악'이라는 타이틀로 열릴 예정이다.

이후 광장음악회는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내년 4월에 다시 시민들을 만난다. 문의 010-2038-35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문화는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 기부, 예술인들의 공연 기부, 기업체의 예술단체 지원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 현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의 향기로운 문화 나눔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일보사(062-220-0661, mekim@kwangju.co.kr)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2-381-223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